

보도시점 2023. 4. 18.(화) 09:00 배포 2023. 4. 18.(화) 09:00

[문체부 ‘MZ드림머스’, 장관과의 정책 동행 시리즈] 박보균 장관, ‘MZ드림머스’와 함께 K-콘텐츠 청년정책 속으로

- 청년문화정책 첫 현장 방문으로 웹툰·웹소설 제작사 방문, 콘텐츠 분야 청년 정책과제 의견 수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4월 18일(화), 문체부 MZ드림머스(2030자문단)와 함께 웹툰·웹소설 전문 콘텐츠제작사인 (주)작가컴퍼니를 방문해 창작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4월 11일(화)에 발표한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 후속 조치로서, MZ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중 하나인 웹툰과 웹소설 제작 현장을 찾는다. ‘청년문화정책 10대 과제’는 청년세대가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장애 등 여건에 상관없이 청년들이 문화를 즐기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MZ드림머스가 직접 선정한 정책개선과제이다.

박 장관은 그동안 “K-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K-컬처의 놀라운 성취 배경에는 청년세대의 독창성, 과격성, 공감성이 있었다.”라며 청년세대의 역할에 주목해 왔다. 이번 방문을 통해 콘텐츠 제작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MZ세대 창작자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주)작가컴퍼니는 MZ드림머스 콘텐츠 분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조은 씨가 2017년 스토리 콘텐츠제작사로 창업한 곳으로, 5년 만에 웹툰·웹소설 작가 500여 명과 직원 100여 명이 근무하는 회사로 성장했다. MZ드림머스 콘텐츠 분과원들은 창작자들과 소통하며 웹 콘텐츠 제작과정에서의 난제와 제작 환경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수렴할 계획이다.

MZ드림머스는 콘텐츠 현장 방문에 이어 앞으로도 문화, 관광·체육 현장을 찾아 청년들의 창의적인 역량이 문화 현장 전반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와 혁신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 행사(오후 2시) 후 현장 사진 및 사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준호 (044-203-2511)
		담당자	사무관	이안진 (044-203-2522)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
지정브리핑

